선택실험법을 이용한
댐호수의 특성별 휴양가치 분석*

권 요 상**

Ⅰ. 서 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댐건설 적격지의 부족과 댐 건설지역 주민의 반대,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규모의 댐건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동강댐이나 한탄강댐 건설문제와

* 이 연구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1-1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점리에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허정희, 이해진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농경예사회학부 부교수.
같이 암건설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암건설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암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암건설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된 분석기법이나 평가항목은 암건설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적절히 객관하게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암건설 편익분석은 편익의 경우 「암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흉수조건, 생·공용수공급, 관계용수공급, 수력발전 편익만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 내륙 주변 및 하류 수질개선, 레크리에이션 기능 제공 편익 등의 많은 편익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비용의 경우에도 민공사비, 수몰지역 보상비, 암 유지·관리비용, 취수 및 경수 설비 건설비, 전력 송전 및 변전시설 건설비, 환경상태 개선비, 주변지역 지원비 등의 직접비용은 평가되지만 수몰지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변화, 수질오염, 문화유적지 유실 등의 비서량적 비용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암건설 편익분석에 있어서 누락된 편익 가운데 하나로서 암건설로 인해 생성되는 인공호수가 제공하는 퇴양가치를 호수의 다양한 특성 별 가치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호수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 다목적 암건설로 인해 생성되는 인공호수는 상당한 퇴양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은 영향이다. 호수의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의 퇴양편익을 유발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암건설의 적격성 여부 판정은 물론 댐의 설계 및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